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 경험에 관한 연구 : 엄격성을 중심으로*

김 미 옥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엄격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자의 경험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위논문을 쓰거나 학술지에 질적 연구를 활발히 발표하고 있는 질적 연구자 9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보고에 엄격성이 어떠한 형태로 글쓰기 되는지를 보고자 사회복지학관련 주요학술지 8종에 게재된 2,112편의 논문을 내용 분석하여 질적 인터뷰 결과 분석을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학문 후속세대에 의해 '필요에 의해 확산' 되는 독특한 형태로 아래로부터 위로 나아가는 정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식론적 입장으로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과 약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과 관련해서는 연구시작부터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문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의 엄격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보다 질(Quality) 높은 연구결과가 산출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질적 연구, 사회복지, 엄격성, 타당도

* 이 연구는 2006년 11월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전북대학교 2004년 신입교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이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연구참여자로 도움을 주신 질적 연구자들, 그리고 학회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들,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1. 서론

최근 사회복지학계에는 연구방법론의 괄목할만한 변화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양적연구의 확대 및 고급통계 지향성이 두드러지는 한편, 양적연구방법에의 지나친 편향, 질적 연구 방법의 미성숙과 왜곡된 연구문화 등에 대한 자성적 고찰이 제기되면서(오정수, 2002; 홍경준, 1998, 2002; 강철희·김미옥, 2003),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급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사회복지학 관련 학회지뿐 아니라 석·박사학위논문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적 현상이다. 그 중에서도 질적 연구방법은 빠른 속도로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연구방법론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정규교과과정에 질적 연구방법론을 개설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3월에는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현장지향성 및 맥락의 강조, 전체론적 관점으로 인간을 조명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과 사회복지학과와의 학문적 적합성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물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열린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철희·김미옥(2003)의 질적 연구방법과 사회복지학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사회복지학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질적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함을 고려할 때, 이제는 질적 연구방법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공동체의 질적연구와 관련된 현실, 그리고 보다 타당한 결과 즉, 연구결과물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엄격성(rigor)'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즉, 질적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험의 공유와 열린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학 질적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혁규(2004)는 질적 연구의 양적 확산에 비해 질적 연구의 질적 수준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일종의 지체 현상이 보임을 지적하면서, 질적 연구의 타당도 확보에 대한 비평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질적 연구의 타당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내 학계에서 충분하지 못해서 몇몇 타당도 준거들이 화석화(化石化)된 형태로 규범적 영향력만을 발휘하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타당도 검증작업이 하나의 방법 수준으로 격하되어 축소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¹⁾ 따라서 초기 질적 연구의 핵심 논의가 양적패러다임으로부터 질적 연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현재 질적 연구자들의 당면문제는 상대주의 만연 속에서 어떻게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립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혹은 보다 질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반향적 논의가 필요하다. 엄격성이 확보된 질적 연구는 사회복지학문공동체에서 보다 빠른 신뢰 확보를 담보할 것이고 이는 질적 연구의 질적·양적 팽창에 영향을

1) 미국 질적연구학계는 질적 연구확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메타적 반성이 적절한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연구전통에 고착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갱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혁규, 2004).

좁으로써 다양한 연구결과의 축적을 통한 지식 생성에 기여할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핵심요소이다. 특히, 사회복지학은 연구결과가 정책과 실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복지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Myers and Thyer, 1997). 따라서 엄격성 확보는 질적 연구방법이 사회과학방법론으로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복지학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 확산을 받기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질적 연구자들은 엄격성과 관련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사회복지학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로서의 엄격성 확보를 위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보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학회지에 나타난 논문의 결과보고에 엄격성 확보노력이 어떻게 글쓰기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8종의 학회지에 보고된 질적 연구 논문들의 연구평가 부분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질적 자료 분석 논의를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던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향후 질적 연구방법론 확산과 관련된 과제 논의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보다 넓은 지지 확보와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지식 생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문헌고찰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validity)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최근의 일로서 학자마다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타당도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질적 연구의 철학적, 연구전통 등의 특성으로 인해 양적 연구에서의 타당도와는 다른 용어, 예컨대 진실성, 엄격성, 엄밀성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진실성(trustworthiness)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엄격성(rigo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한다(Gerard and Cecily, 2004).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진실성을 포함하면서도 연구자의 책임성과 연구과정(research process)을 보다 강조한 엄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부 질적 연구자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실제(reality)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는 엄격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기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Smith, 1984),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에 대한 지적 관심과 학술적 탐구는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에 대한 정의와 인식론적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최근 보여주는 질적 연구들이 어떠한 인식론적 정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trust-worthy) 정도를 의미한다(Lincoln and Guba, 1985). 신뢰할 수 있는 연구란 공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면서 동시에 연구대상의 경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연구를 말한다(Steinmetz, 1991; 유태균, 2001). 이 신뢰도는 학문적 엄격성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으며, 질적 연구 전반의 과정과 결과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의미한다. Mathison(1989)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상호성의 기반 하에 질적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고, '매우 그럴법한 추론'으로 결론이 났었는가를 가장 핵심적인 타당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좋은 질적 연구는 ①엄격한 자료수집절차를 따르고 ②연구를 위한 질적 접근의 가정들과 특성들 내에서 연구의 틀을 규정하고 ③하나의 연구전통을 사용하고 ④단일한 초점을 가지고 시작하고 즉, 연구자가 이해하고 싶어 하는 단일한 아이디어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⑤구체적인 방법들(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보고서 쓰기 등)에 엄격한 접근을 하고 ⑥설득력 있게 글을 씀으로써 독자들이 '거기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⑦복합적인 추상화단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⑧글쓰기가 매력적이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로 가득 차 독자로 하여금 그 속에 빠져들도록 해야 한다(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2005)고 하여 엄격한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엄격성은 질적 연구에서 여러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크게는 약한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엄밀성, 진실성 등 질적 연구 고유의 용어로 연구의 질 확보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는가 하면, 협소하게는 연구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신뢰도, 타당도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여전히 양적 패러다임의 실증주의적 평가기준을 활용하기도 한다. 반면, 강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어 혹은 전통적 타당도의 모든 개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연구실천을 위해 타당도 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에서 연구실천은 인식론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윤리적·도덕적·실천적인 것으로 재정향화된다(이혁규, 2004).

실증주의(positivist) 입장에서 엄격성 기준은 질적 연구이든 양적 연구이든 상관없이 단 하나의 기준(과학적 방법론)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진 질적 연구자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관점은 관념적 차원 즉, 양적연구자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유태균, 2001).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t) 입장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의 엄격성 기준과는 별개의 그러나 유사한 일련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다만 질적 연구 또한 실증적인 근거, 일반화 가능성, 그리고 편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동의가 있을 뿐이다(Hammersley, 1992). 이러한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는 모두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한 외적 실재(external reality)를 전제로 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론적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에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질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일반적으로 연구의 재생산가능성(reproduci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고 참여자들이 결과의 의미에 동의하는 정도를 말한다. Goetz와 LeCompte(1984)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외적 신뢰도와 내적 신뢰도로 구분한다.²⁾ 한편, Taylor와 Bogdan(1984)는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는 연구 장면에서 실제로 일어

나는 것과 자료로 기록되는 것 간에 합치성(the fit)으로서, 일어나는 것과 기록되는 것 간의 합치성으로 설명한다. 이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장노트기록, 질적 연구를 공동연구로 진행, 참여자가 현장노트나 최종보고서 검토, 연구감사, 특정 외부 연구자가 연구의 전체과정을 통해 감사자 역할을 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란 넓은 의미로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된 문제이며, 좁은 의미로는 연구현상을 측정하는 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대상을 측정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신옥순, 2004). Goetz와 LeCompte(1984)는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를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로 구분³⁾하며, 연구수행의 방법과 절차를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진행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

질적 연구자들이 실증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양적 용어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혁규(2004:183)는 하나는 질적 연구자들의 방법론적 반성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양적연구자들이 다수인 학문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학문전통을 정당화시켜야했던 초기 질적 연구자들의 생존조건, 즉,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주류학자들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설명해야 하는 소수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구성주의는 연구의 엄격성에 대해 실증주의와는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Lincoln과 Guba(1985)는 진실성, Altheide와 Johnson(1994)는 회귀적 책임(reflective accounting) 등의 질적 연구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양적연구와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의 다른 연구자들은 인문과학의 여러 분야들로부터 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찾기도 한다. 인문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가기준 용어들은 실증주의자들에게는 모호하고 부정확한 용어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 반면, 구성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양적 연구방법의 도움 없이도 인문학의 전통으로부터 얼마든지 훌륭한 학문이 발전되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이다(McCracken, 1988; 유태균, 2001).

이러한 입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Lincoln과 Guba(1985:289-301)는 질적 연구를 자연주의적 탐구라고 명명하며, 이 자연주의적 탐구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독자들이 연구결과의 가치와 확실성(authenticity)을 인정하고 믿어주는 정도를 의미하며,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으로 구성된다⁴⁾(신옥순, 2004. 재인용). 그러나, 자연주의적 탐구에 어울리는 완전히 다른 타당도의 개념을 찾으려 한 그들의 주장과 달리, 양적연구의 질 평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

- 2) 외적 신뢰도란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구성개념을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의 강조를 말한다. 내적 신뢰도란 다른 연구자들에게 이미 산출된 일련의 구성개념을 제시했을 때 원래의 연구자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와 구성개념을 결부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3) 외적 타당도는 결과의 일반화가능성, 즉 구성개념과 전체들이 다른 집단에 적용 가능하도록 산출되거나 정교화 또는 검증된 정보를 의미한다. 내적 타당도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관찰, 또는 측정된 것을 실제로 관찰하거나 측정된 정도를 말한다. 외적 타당도가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의 문제라면, 내적타당도는 연구의 정확성(accuracy)과 관련된 개념이다.
- 4) 사실적 가치는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의 정확성(내적 타당도), 적용성은 연구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외적 타당도), 일관성은 연구의 신뢰도, 중립성은 연구의 객관성을 의미한다.

도 하였다(Eisenhart and Howe, 1992). 이에 대한 대안으로 Lincoln과 Guba(1985:301~327)는 신뢰도,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제시하였다. 지금의 질적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기적인 관찰 삼각 검증법, 동료 조연 등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정식화 된 것이다. 이후 Guba와 Lincoln(1989)은 'Four generation evaluation'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확실성 기준들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즉, 공정성(fairness), 존재론적(ontological), 교육적, 촉매적(catalytic) 확실성이 그것이다.⁵⁾ 이 기준은 1985년에 제시되어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성과 비교할 때, 전통적 방법의 기준을 탈피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확실성 개념을 통해 이들의 구성주의적 탐구 실천은 비판이론, 실험연구, 그리고 참여적, 협동적 연구의 문제의식과 조우하게 된다. 이후 Lincoln(1995)은 연구의 질 관정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⁶⁾ 1985년에 이들이 제시한 기준들이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타당도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서 타당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은 질적 연구 분야가 자기 정당성을 둘러싸고 매우 역동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이혁규, 2004:184~187, 재인용).

한편, Eisenhart와 Howe(1992)는 타당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 준거(general standards)와 특정적 준거(design-specific standards)를 제시한다. 일반적 준거는 연구의 광범위한 경계 제공, 구체적 전략은 제시하지 않으며, 특정적 준거는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특수한 증거, 지식, 원리, 기준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Eisner(1991)는 질적 연구의 질 감정을 위한 표준화된 도구나 절차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작품의 질을 평가하듯이 전문가의 세련된 안목에 의존하는 전문가 감정(connoisseurship)을 질적 연구의 전반적 질 평가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내적 타당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전문가 감정은 실증적이기 보다 해석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 경험적이며 객관적이기 보다는 다분히 주관적이다. 전문가 감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1차적 조건은 감정하는 사람의 자질 즉 전문성으로 보고, 이를 위해 3가지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⁷⁾

- 5) 공정성 기준은 연구참여자나 관련자의 견해, 관심, 주장, 목소리들이 생략됨 없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연구 텍스트 속에서 다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실증주의적 객관성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소외와 주변화를 막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텍스트 속에 성실하게 담으려는 사려깊은 시도이다. 존재론적 확실성과 교육적 확실성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인식 고양, 나아가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각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음으로 촉매적 확실성과 전술적 확실성은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촉진하고 참여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형태의 사회정치적 개입을 위해 참여자를 훈련시키는데 연구자가 헌신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 6) Lincoln(1995:178-279)이 연구의 질을 관정하기 위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연구공동체(inquiry community), 위치성(positionality), 공동체(community), 목소리(voice), 비판적 주관성(critical subjectivity), 상호성(reciprocity), 신성함(sacredness), 특권의 공유(sharing the perquisites of privilege) 등이다. 여기에서 Lincoln은 거의 모든 기준이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좋은 연구, 나쁜 연구를 가르는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7) 첫째, 구조적 확증성(structural corroboration)으로서 작은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감동적 전체를 만들어 내듯이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서로 관련지어 전체적 그림을 완성해 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둘째, 공감적 타당화(consensual validation)로서 연구자의 기술, 해석, 평가 등에 있어 식견 있는 다른 사람들 간에 의견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준거이다. 셋째, 참조적 충분성(referential

인식론적 연속선 상에서 구성주의보다 실증주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는 어떠한 평가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인식론적 입장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강한 구성주의에 속하는 Gergen, Scheurich, Lather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이혁규, 2004). 이러한 입장은 신뢰도나 타당도에 대한 관심이 질적 연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여러 가지 해석적 ‘진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찾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패러다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인식론적 입장과 연구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맥락이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Denzin, 1994). 또한 Padgett(1998)은 질적 연구가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수단임을 입증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엄격성은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유태균, 2001, 재인용). 본 연구는 이와 맥을 같이하여, 연구자가 어떠한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용어로 글쓰기 되든지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함을 상기하면서, 한국 사회복지 질적 연구자의 엄격성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 사회복지학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가 연구과정에서 겪는 엄격성과 관련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박사논문을 썼거나 현재 활발히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심층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것은 한국 사회복지학에 질적 연구의 확산이 일천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과 엄격성 확보를 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는데 서베이보다는 질적 접근이 더 유용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설계 당시는 개별인터뷰를 할 계획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참여자를 섭외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질적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모여 논의하는 포커스 그룹이 서로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는 제안이 있어, 개별인터뷰와 함께 포커스그룹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실제로 개별인터뷰에서는 연구과정과 결과보고에서 각 개인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장점이 있었고,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관련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거나 지지, 강조되어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보다 통합적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개별인터뷰는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와 박사학위 소지자 각 2명으로 총 4명이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최근 질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4

adequacy)으로서 독자들이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준거를 의미한다. 이 준거는 읽는 사람들의 지각과 이해의 확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충족여부가 결정되는 준거이다.

명, 박사학위소지자 1명으로 포커스 집단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두 사회복지학 전공자였으며, 성별분포는 남성 1명, 여성 8명으로 총 9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30대 6명, 40대 3명으로 최근에 연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질적 연구자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실제로 연구논문의 결과보고에서 엄격성 확보와 관련된 노력들이 어떻게 보고되는지, 그리고 질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타당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자 2006년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학이 주전공인 한국 사회복지학회지를 비롯한 8종의 학술지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9명의 질적 연구자 이외의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를 발표하는 다양한 학자들이 어떻게 엄격성과 관련된 고민을 논문 안에서 녹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분석대상이 된 학술지는 사회복지학회의 <한국사회복지학>과 세부 전공 관련 학회들의 학술지인 <한국가족사회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사회복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한국사회복지정책학>,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등 총 8종이었다. 모든 학술지는 <한국사회복지학>이 창간된 1979년을 기준으로 창간호부터 200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관련 학술지 및 석·박사 학위 논문, 각 대학의 연구논집 등이 있다. 이는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없었던 시간과 비용에 따른 현실적 한계 때문이었다. 이후의 연구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연구참여자에게 일대일로 전화하여 인터뷰 허락을 받은 후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연구실, 집, 조용한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에는 반구조화된 연구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질문은 질적 연구 엄격성과 관련된 질문들, 예컨대, 질적 연구수행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적 연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스스로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사회복지학에서 엄격성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가? 질적 연구의 엄격성 관련하여 어떠한 용어가 바람직한가 등이었다. 인터뷰 기간은 2006년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이었다. 분석을 위해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ATLAS-ti 5.0이라는 질적 자료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학을 비롯한 8종의 학술지에 대한 내용분석은 1차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학술지들의 목차를 일일이 점검하여 질적 연구 논문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연구제목만으로는 질적 연구 여부가 불명확한 연구들이 발견되어, 다시 연구논문을 하나하나 일일이 내용을 들여다본 후 질적 연구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작업을 다시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찾은 후에는 논문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찾아 내어 이를 내용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로 연구방법 기술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가능한 연구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보고의 관련 내용에 각주 처리하여 질적 인터뷰 분석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연구결과의 엄격성 확보를 위하여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1차 분석된 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보낸 결과, 9명 중 5명이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시 본 연구결과를 읽으면서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1차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엄격성과 학문공동체에서의 질적 연구자 경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구분이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으나, 다시 정독한 결과 질적 연구자로서 사회복지학 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의 경험이 엄격성 관련 경험과 배타적으로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결과보고를 연구과 정별로 기술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었다. 둘째, <표 2>에 제시된 하위범주 중 ‘글쓰기를 제대로 해야 함’을 1차 분석에서는 ‘내용없이 타당도 표현들만 떠돌음’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이 범주가 개념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어서, 연구자가 다시 원자료로 되돌아가 개념을 재정리하면서 ‘글쓰기를 제대로 해야 함’이라는 범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분석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위협요소, 보호요소라는 용어사용이 기존에 사회복지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혼돈스럽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역시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하여 엄격성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제라고 보고 연구과정 중심으로 결과부분을 서술하였다. 이 외에도 2006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에서 1차 분석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2명의 토론자께서 귀한 의견을 주셔서, 이를 최종 논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4. 연구 결과 분석

1)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의 실태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가 학회지에 등장한 것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된 김연옥(1990)의 논문이 최초이다. 1979년에 한국사회복지학 창간호가 발간된 것을 고려하면, 거의 10여년이 흐른 뒤에야 질적 연구방법이 한국사회복지학에 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학의 주요 학술지 8종을 분석한 <표 1>의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는 2006년(8월 31일 기준) 현재 총 71편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종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총 2,112편임을 고려할 때,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은 3.4%로 매우 미미한 수치이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학이 양적연구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홍경준, 2002; 강철희 외, 2003).

연도별로는 1990년 첫 논문이 등장한 이후 1996년부터 매해 2편에서 많게는 4편의 질적 연구 논문

이 발표되고 있다. 2002년에 5편의 질적 연구가 발표되면서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매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5년에는 21편의 질적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2006년도의 경우 8월말을 기준으로 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회지별로는 한국가족복지학이 전체 121편의 논문 중 13편으로 10.7%를 나타내었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총 103편 중 6편으로 5.8%, 한국사회복지학이 총 736편 중 33편으로 4.5%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가족복지학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의 경우, 90년대 후반에 창간되어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가 증가하는 시점과 맞물린 결과로 평가된다. 학회지별 차이는 있으나, 사회보장연구를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의 실태

학회지명	한국사회복지학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정신보건과사회사업	합계
창간년도	1979	1989	1995	1985	1999	1997	1993	1994	
1990	1	0	0	0	0	0	0	0	1
1996	2	0	0	0	0	0	0	0	2
1997	1	1	0	0	0	0	0	0	2
1998	1	1	1	0	0	0	1	0	4
1999	1	0	1	0	0	1	0	0	3
2000	0	0	0	0	0	2	1	0	3
2001	2	0	0	0	1	0	0	0	3
2002	3	0	0	0	0	1	0	1	5
2003	5	0	0	0	1	1	0	1	8
2004	5	1	0	0	0	2	1	0	9
2005	5	1	1	0	3	6	2	3	21
2006	7	0	0	0	1	0	1	1	10
계	33	4	3	0	6	13	6	6	71
총계	736	255	280	312	103	121	160	145	2,112
비율	4.5	1.6	1.1	0	5.8	10.7	3.8	4.1	3.4

2)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자의 엄격성과 관련된 경험

한국 사회복지학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들은 엄격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⁸⁾ 이는 최근 3~4년 전부터 한국 사회복지학계에 질적 연구가 급격히

8)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개별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의 인용문을 제시할 때 (개1), (포1) 등으로 제시하였다.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질적 연구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며 엄격성을 확보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가시화되지 않았던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향후 질적 연구방법론 확산과 관련된 과제 논의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 2>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자의 엄격성과 관련된 경험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근거이론의 지나친 틀에 얽매임, 앎이 부족함, 앎을 위한 체계가 없음, 철학이 부재함, 연구의 깊이가 없음	앎이 부족함	앎을 위한 체계가 부족함
쉬운 방법이라고 오해함, 단순한 기술로 오인함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가 있음	
하나의 브랜드화함, 이론과 실체가 같음, 연구문제보다 연구방법을 먼저 선택함, 감정에 치우쳐 연구방법을 선택함, 하나의 방법(근거이론)에 집중됨	연구방법론을 먼저 선택함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함
가이드라인이 없음, 개념도출에서 갈등함, 숙련되지 못함, 충분한 공부없이 진행함, 철저한 교육이 부재함, 건너올 수 없는데 건너움, 제대로 배워서 해야 함, 절차만 갖춘 연구가 있음	배우면서 연구함	
생생하고 진실되게 묘사함, 진솔하게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담음, 과정과 결과분석을 모두 충실히 함,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 진실하게 함, 연구자의 윤리가 중요함	진실되게 함	
배운대로 함, 연구방법자체를 철저히 따름, 코딩단계부터 엄격히 함, 창시자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따름, 절차·배움·과정이 중요함, 절차의 엄격성 확보가 필요함, 연구주제와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배운대로 함	기본에 충실하며 진실되게 함
철학으로 되돌아감, 교육·기본에 충실해야 함, 엄격성 확보를 위한 한가지 장치는 없음, 철학적 반성을 함, 판단중지함, 철학을 연구방법론에 담기 어려움, 학문의 진리성을 고민함, 철학적 반성을 함	철학과 기본으로 되돌아감	
도구로서의 연구자 준비가 필요함, 연구자의 특성이 결과에 반영됨, 질문초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 연구자의 양심이 중요함, 연구자의 준비가 전체임, 연구자 준비와 윤리가 최고의 기준임, 교육이 중요함	연구자의 준비가 중요함	
질문이 중요함(판단중지), 질문이 어려움(어디까지 구체화), 의도적 질문은 위험함, 질문하기가 중요함(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 질문을 올바르게 해야 함,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이 적합해야 함	연구질문이 중요함	
연구참여자의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 연구참여자 동의가 최고 힘이 됨, 연구참여자가 중요함, 자료에 충실해야 함,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연구참여자를 존중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함, 부정적 사례를 탐구함, 동료나 참여자에게 읽힘, 장기간 관계를 형성함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함	연구 전(全) 과정을 엄격하게 함
질적연구 고유 용어를 사용해야 함, 질적 연구방법을 살리는 타당도 기준이 필요함, 새로운 용어 사용이 바람직함, 양적연구와 같은 신뢰도 타당도 용어 반대함	질적연구 고유 용어의 타당도 기준이 필요함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과정에 충실함, 깊이있게 탐구되어야 함, 결과에 대한 조급함	충분한 시간요함	
연구방법에 대해 너무 적게 씀, 질적 연구를 양적연구 틀로 쓰는 경우가 있음, 짧은 분량에 담기가 어려움, 너무 글쓰기를 요약함, 양적연구와 다른 글쓰기가 필요함, 글쓰기에서 엄격성 확보과정을 보여주어야 함, 절차를 써야 함, 글쓰기에서 판단중지의 어려움, 신뢰도 타당도와 혼돈됨	글쓰기를 제대로 해야 함	
소진(데이터 수집), 분석과 해석의 어려움, 본질이해에 대한 두려움, 암중모색, 눈에 빠짐, 사회복지적 함의도출에 대한 부담	정확한 본질이해가 두려움	
양적연구자와 의사소통 편의성, 자발적으로 신뢰도·타당도 용어 사용함, 타협함(양적연구용어 표현의 편의성), 점진적으로 바꾸어야 함, 엄밀성 논의에 대한 조심스러움, 다른 것 같으나 같은 개념임, 질적 연구의 일상성에 대한 양적연구자의 오해를 염려함, 주류에의 폐쇄됨	일부 타협함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음
논문심사시 사회과학적 용어를 사용해야 함, 학회지심사에서 불편함을 경험함, 사회적 신뢰도 확보가 어려움, 논문심사에서 어려웠음	논문심사과정 이 어려움	

연구자 내면의 지속적인 훈련, 에너지를 얻게 됨, 깊숙한 깨우침의 과정, 연구과정자체가 옹호와 대변이 됨, 연구자가 변화함, 연구자에게 힘이 됨, 기쁨이 됨, 삶의 진리가 됨	연구자에게 힘을 부여함	깊숙한 깨우침과 에너지를 얻음
그들의 자리에 가게 됨, 연구참여자가 변화함, 삶 속으로 들어감, 삶 전체를 닦아냄, 옹호의 과정, 사회복지의 무기입	그들의 자리에 가게 됨	
한국의 현장특성을 담은 연구가 필요함, 현장에서 필요가 생김, 학생으로부터 시작됨	필요에 의해 확산됨	
교육이 필요함, 연구자의 양심이 중요함, 학생교육시 인간중심사고를 키워야 함, 기초선을 높여야 함	교육이 중요함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함
질적 연구자간 상호교류해야 함. 다학문으로 영역을 넓혀야 함, 양적·질적 연구방법론이 공존해야 함, 함께 감, 질적·양적연구자가 함께 해야 함, 질적학회의 역할이 중요함	상호교류가 필요함	

(1) 연구시작단계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시작단계에서 앎을 위한 체계가 부족하고,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① 앎을 위한 체계가 부족함

질적 연구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복지학문공동체에 앎을 위한 체계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질적 연구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와 지식 습득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질적 연구방법론이 사회복지학 정규교과과정 안에 있는 경우는 매우 소수로, 연구자들은 간호학, 인류학, 교육학 등에서 청강을 하거나 워크숍 등을 통해 발로 뛰면서 알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앎의 부족으로 질적 연구 과정에서 스스로 제대로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적연구에 비해 쉬운 방법 혹은 단순한 기술로 오해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적 연구방법이 과학적 방법임을 보여주려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절차가 명료한 근거이론 방법에 학위논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복잡한 사회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칫 질적 연구방법 중 더 나은 혹은 우위의 방법론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근거이론이 주로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마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지적받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앎이 부족하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개1)

지금 다 알다시피 근거이론 안하면 질적 연구가 아니고 근거이론 해서도 꼭 패러다임 제시해 줘고 (포4)

② 충분한 준비없이 시작함

질적 연구자들은 최근 사회복지학계의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 증가가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위험이 내재함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연구문제에 맞는 연구방법론을 선택하기 보다 자기가 선호하는 혹은 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먼저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 근거이론의 정형화된 절차에 집중하는

것, 질적 연구방법을 하나의 브랜드인양 오인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복지학계에서 연구자로서의 윤리, 기본자세, 연구과정 등과 관련된 기본교육을 보다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어느 하나의 방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회복지학계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근거이론을 썼다. 나는 t-test했다. 에이모스를 썼다.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학문적 전통 중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질적 방법론이 잘못하면 같이 흠을 출수도 있는 거지요. (중략)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싶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방법론이 먼저.. 우리나라는 앞뒤가 바뀐 거지. 뭘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기능성 옷을 입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었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러한 것이 학문적인 성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개4)

질적 연구자들이 엄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않고, 질적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배우면서 연구에 뛰어들어서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는 엄격성을 저해하는 매우 큰 위험요인인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질적 연구를 쉬운 방법으로 오해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하는 김에 연구까지. 이런 정신,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늘 상담하니까 이걸 내용 잘 정리하면 질적 연구가 될 꺼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개1)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막 열심히 공부한 한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개4)

(2) 연구수행단계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수행단계에서 연구윤리에 바탕을 두고 기본에 충실하며 진실되게 하고, 연구의 전과정을 엄격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① 기본에 충실하며 진실되게 함

엄격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얼마나 엄밀하고 진실하게 담아내는지가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엄격성을 어떠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는지는 엄밀성, 진실성, 엄격성, 질 검증 등 다양한 용어의 사용이 논의되었으나 단일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진실성이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2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있었다. 질적 연구자들은 좋은 질적 연구 혹은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기본에 충실하며 진실되게 함'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Lincoln과 Guba(1985)는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을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비교할 때, 질적 연구자들은 엄격성을 연구의 전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며 진실되게 함'으로 제시하여, 과정 및 결과 모두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

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연구윤리를 지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했던 현상을 정말로 생생하게 진실하게 표현했으나, 묘사했느냐가 엄격성이라고 생각하고(개4)

자기를 도구화로 만들기 위한 과정도 저는 결국은 양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자의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엄격성보다는 저는 진실성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포1)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대로 함, 다시 말해 연구방법자체를 철저히 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의 선택과 그 연구방법의 절차 안에서 매 단계마다 엄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단순히 신뢰도 혹은 타당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전제임을 알 수 있었다.

엄격성이라면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질적 연구라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방법이라할까? 그거를 철저히 따르는 것 그거가 가장 중요할거 같아요(개3)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충실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했고, 엄격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배운 방법론에 따라 철저히 충실하게 내가 바르게 수행을 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고(개2)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질적 연구를 알면 알수록 철학이나 기본으로 되돌아가게 되며, 이것이 엄격성의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엄격성 확보를 위한 한가지 분명한 장치, 예컨대 신뢰도, 타당도처럼 한 두개의 기준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학문의 진리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철학과 기본에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철학이나 인문학적 소양 배양을 위한 과목들이 사회복지학 교과과정 안에 있어야 함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알면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이렇게 그걸 탐색하게 되는거 같은데(포3)

저는 학생들에게는 요즘에 사회복지든 무슨 학문이든 철학을 공부해야 한다. 예전에는 철학은 진짜 별로 쓸 말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질적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현상학을 한다고 했으면 너 후설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하느냐 생각이 들고 (중략)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코딩 이렇게 해가지고 글쓰고 이렇게 하느냐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아 참 연구를 참 잘 못했다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포2)

② 연구 전(술)과정을 엄격하게 함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하나의 도구로서 연구자의 특성이 연구에 반영되므로, 특히 연구자의 준비도가 엄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자 스스로

엄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양심의 유지, 질적 연구자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연구자의 준비는 단순히 질적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앎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판단중지, 윤리적 태도, 연구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를 전제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이라는게 결국 아는 것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포4)

연구자 자신이 얼마나 에포케를 하고 얼마나 준비되어서 이것의 민감성을 높인 상태에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해왔는가. 저는 엄격성에서 제일 중요한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에서 가장 크게 간과된 부분이 거기에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개1)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적 요소로서 비(반)구조화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비(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에 임하게 된다. 이 때, 연구자들은 어디까지 비(반)구조화해야 할 것인가, 판단중지된 질문들인가, 연구자의 의도적인 질문들은 아닌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방법에 적합한 연구 질문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비(반)구조화된 질문의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어렵다고 제시하였다.

저는 도구자의 엄격성은 질문하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박사논문 쓰면서 깨달았어요(개1)

연구참여자 목소리를 얼마나 진솔하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담아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사실 뒤에 분석방법도 중요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핵심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이런 노력들 정말 중요한거 같아요, 뒤에 그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느냐 보다는 사실 수집자체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포4)

질적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 동료에게 분석자료를 읽히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특히 연구참여자에게 분석결과를 다시 읽게 하고 검증받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연구참여자가 동의하였을 때는 매우 힘이 나는 즉 타당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주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평가방법을 보고하고 있었다. 일부 의견(2명)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이 유익하다고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참여자 다수는 분석의 시간이 절약되는 편의성은 있으나 그 자체가 엄격성을 높이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다시 정말 잘되었다고 피드백이 왔을 때 그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이 없었죠(개1)

9)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연구방법 평가를 알아보고자 한국사회복지학을 비롯한 8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논문의 연구방법 평가를 분석하였다(연구자가 제시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중복응답수치임). 그 결과 연구참여자 검토 13.3%, 동료검토 39.6%(교수, 대학원, 임상전문가 등), 연구자의 편견배제 11.3%, 삼각화 7.8%, 공동연구(분석자 다원화) 6.4%, 감사자료 5.7%, 다원화 3.5%, 장기간의 관계형성 2.8%,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2.1%, 도구로서의 연구자, 예외적 사례분석 각 1.4%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료들 통해서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죠(포5)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연구가 주류인 사회복지학문공동체 에서 당분간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고유의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즉, 신뢰도, 타당도라는 용어보다는 질적 연구의 진실성, 엄밀성, 엄격성, 질 검증 등 고유의 용어 사용을 통해 질적 연구를 보다 질적 연구답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⁰⁾. 학회지에 보고된 질적 논문분석 결과,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엄격성, 엄밀성, 진실성 등 다양한 용어 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소수의 연구자 중에는 연구평가기준이 필요한가 라는 강한 구성주의적 시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전통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인식론적 정향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과정과 결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개념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자면 질 검증이라고 좀 인제 광범위하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포1)

사회과학에 동일한 잣대를 대지는 아니 동일한 잣대는 아니지만 동일한 용어를 통일하자는 의미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를 쓰자는 건데 이미 신뢰도 타당도라는 게 양적연구에 이미 그동안 20년, 30년 넘게 지배해왔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적 연구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이미 이전에 양적연구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개4)

그냥 타당도 신뢰도 하면 사람들이 양적 연구의 틀에 맞춰가지고 연구를 불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구요 그거 말고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포4)

질적 연구의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어서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성과위주 및 ‘빨리 빨리’를 강조하는 연구풍토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과 맞물릴 때 질적 연구논문의 질과 엄격성이 저해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가로막는 측면이 있는데(개2)

빨리 보고를 두개를 해야 하는데, 한개는 꼭 나와야 하는건데 이것을 계속 잡고 있자니 그럴 수 없고 그런것 들 때문에 참 시간이 이것은 여유있게 진행을 해야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과정에 충실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외형적인 평계를 하는 거죠(포2)

질적 연구의 글쓰기는 양적 연구와 다르다. 그러나 질적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의 틀에 질적 연구의

10)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Lincoln과 Guba의 중립성, 일관성, 사실적 가치, 적용성으로 17.0%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링컨과 구바가 제시한 평가기준 중 하나인 일관성을 별도로 사용하는 연구자 14.9%, 엄격성 14.9%, 확실성 10.6%, 엄밀성 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Strauss와 Corbin의 평가기준(타당도와 신뢰도, 발견한 이론, 연구과정, 연구에 대한 경험적 근거)을 제시한 경우가 4.3%, 기타에는 연구자의 의미체계, 자료 왜곡 해석 오류용어 사용하지 않음, 주관성 해석 배제, 연구자의 편견, 선입견통제 용어 사용하지 않음 등이 제시되었다.

글쓰기를 맞추려 하다 보니, 진정한 타당도의 확보는 사라지고, 화석화된 혹은 인용구처럼 남는 타당도 확인이 난무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¹¹⁾. 이는 양적연구와 다른 글쓰기가 결과보고에서 허용되는 학문풍토와 학습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질적 연구의 ‘질적스러움’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연구결과보고 방안 검토, 연구결과 보고서 엄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사고의 변화 과정 기술, 학회지의 경우 분량을 늘려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회지가 27 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을 권고하는데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충분히 보고하는데 이 분량이 제한점이 됨을 제기하였다. 질적 연구의 결과는 인터뷰를 마치고 통계를 돌리면 한번에 분석되는 마법같은 과정이 아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연구질문이 바뀌고, 용어가 재명명되는 지속적인 사고의 지난한 과정이다. 이러한 질적 연구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인터뷰하면서 혹은 글을 쓰면서 어떻게 개념이 도출되고, 연구주체에 대한 생각이 전환되면서 최종 글쓰기가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각주 13)의 결과를 보면, 학회지에 보고한 질적 연구 논문들은 질적 연구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다소 강하나, 신뢰도나 타당도라는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상당수 제시되어 평가기준이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식론적 입장으로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과 약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당도가 얼마나 높았다가 아니라 타당도를 어떻게 높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요. 양적연구는 양적연구대로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질적 연구는 질적 연구대로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논문들이 대부분 학자들의 타당도 이야기를 따다 그대로 붙이거든요. 이런 이런 이런 타당도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데 그거 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개1)

타당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마치 이런 이런 타당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표현들 대신 유사한 연구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누구에게 검증을 받았고, 이 방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원화 노력을 했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내용은

11) 질적 연구논문들 중 연구의 평가를 제시한 논문은 총 71편 중 46편(64.8%)으로 과반수이상이었다. 그러나 전체 71편 중 25편(35.2%)은 연구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논문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었다. 논문의 체계 구성에서 연구의 평가방법을 제시한 46편의 논문을 가지고, 연구자가 제시한 평가방법의 개수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준 1개와 2개가 각 14편(30.4%)으로 가장 많았고, 2개가 3개가 8편(17.4%), 5개가 6편(13.0%)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평가방법의 추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2년 시점부터 연구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한 논문이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6년에 와서는 90% 이상이 연구의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2년을 기점으로 질적 연구가 사회복지학에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증가한 점, 질적 연구방법을 학습한 학문후속세대의 증가 추세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의 평가를 제시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의 반영은 아닌지 추정해볼게 된다. 이는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이다. 그러나 연구결과보고에서 결과 평가 보고가 뚜렷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논문에서 그러한 평가가 연구과정 및 결과보고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을 알기는 어려웠다. 단지 유사한 용어와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반복되어 기술되는 듯한 인상마저 있었다. 이를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내용없이 화석화된 타당도표현이 떠돌음’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결과보고에 엄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없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표현들만 떠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냥 무슨 인용구로 돌아다닌다는 거죠(개4)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과정을 통해 힘을 부여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확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지 혹은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소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암증모색이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타학문과 달리 사회복지전공자로서는 현상 혹은 본질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적 함의 도출에 대한 강한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 건지 정말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형체를 갖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언어의 파편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주섬 주섬 담아가지고 어떠한 형체로 만들어 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도 들고(개3)

질적 연구하는 과정은 늪에 빠진 거 같으면서도 어떤 선에서 그만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중간 내내 계속 질문부터 잘못된진게 아닌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개2)

(3) 연구종결 및 결과보고 단계

연구자들은 정확한 본질 혹은 현상 이해에 관한 두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며 힘을 부여받고(empowered), 클라이언트의 자리에 가는 ‘깊숙한 깨달음과 에너지를 얻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음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질적 연구자들이 제기한 한국 사회복지학문공동체의 현실 중 하나는 논문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다. 이는 박사학위논문이나 학회지 논문 투고 과정 모두의 공통된 현상이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심사자들과 타협을 시도하기도 하고, 적극적 입장 표명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의 확산이 필요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어서, 기존의 교수들 혹은 논문 심사자의 위치에 있는 학자들이 주요 양적 연구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질적 연구 고유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심사자들은 양적연구의 틀로 질적 연구를 재단하고 심사하려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도 연구경험과 얹어 일천하여 자신의 관점과 지식에 근거한 심사를 하다보니 논문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복지학 내에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얼토당토않은 심사를 받는 경우도 너무 많은데. 우리도 잘 모르는데 우리보다 더 모르는 사람하고 싸워야 하니까 그게 사실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면 싸우기도 저는 오히려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너무 그 논리가 좀 딸리는 거죠

(포3)

일단은 지도교수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구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논리적인 설득은 안되었던 거 같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나가서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된거구요 (개3)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연구가 주류인 학문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위해 양적연구의 체계에 질적 연구의 특성을 일부분 유보하는 타협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질적 연구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엄격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였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안에서 일부 질적 연구자들은 엄밀성, 혹은 진실성 등의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기준보다는 신뢰도, 타당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질적 연구의 영역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²⁾. 그러나 연구참여자에게 분석결과를 다시 검토 받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중 1인이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적어도 논문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경험함을 제시하여 본 결과분석에 제시하였다.

사회과학적인 이론적 용어를 쓸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사실은 타협일 수도 있구요 어쨌든 학문이라는 것이 발맞추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타협을 봐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개1)

일단 양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참여자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마다 이제 부딪치는 게 사실은 신뢰도 타당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훨씬 communication이 원활하더라요(포5)

② 깊숙한 깨우침과 에너지를 얻음

‘질적 연구 수행 경험’ 그 자체는 연구자에게 스스로 변화를 야기하는 독특한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과정에서 정확한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두려움이 앞서고, 외롭고, 늪에 빠지고, 암중모색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 내면이 지속적으로 훈련됨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힘을 부여받는(empowered)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내부자 관점으로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통한 본질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기쁨과 삶의 진리, 에너지를 얻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경험의 독특성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자리(입장)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참여자의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입하게 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양적 연구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고, 사회복지학에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경험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기쁨과 에너지를 얻으며, 한편으로는 힘을

12) 질적 연구자들이 연구의 평가를 제시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 혹은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기준을 사용하는지 보고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평가기준으로 질적 연구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논문은 21편(45.7%)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은 14편(30.4%), 이를 혼용하고 있는 논문은 11편(23.9%)으로 조사되었다.

부여받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한 사람은 질적 연구과정을 통해 스스로 겸손을 배우게 됨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삶의 진리를 얻고 연구자 내면이 지속적으로 훈련되는 하나의 과정임을 제시하였다.

항상 질적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다시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같다고 할까. 그래서 하는 동안 너무 기쁘기 때문에...(개4)

질적 연구가 뭐냐고 이야기 할 때, 무엇을 새롭게 산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 있으면서, 또 한편 연구자로서의 한 축은 상당히 외로운 과정이고 길면서 외롭고, 혼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과정이잖아요(개2)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입장(position)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적 연구를 통해 클라이언트 삶의 조각 혹은 단편이 아닌 전체,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적 연구가 가장 현장 이해에 적합한 사회복지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자체가 하나의 advocacy 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논문 자체가요 그러면 좀 제대로 되어야 할 거 같아요(포3)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자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같이 들어가서 리얼하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개3)

(4)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질적 연구의 과제

한국 사회복지학에서의 질적 연구는 ‘필요에 의해 확산되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질적 연구자들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연구자 및 양적·질적 연구자, 타학문과의 활발한 상호교류 안에서 연구문화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① 함께 만들어나가야 함

한국 사회복지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는 교수, 학계에 의해 혹은 정규 교과과정 안에서 확산되기 보다는 일부 학문후속세대와 현장 경험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필요에 의해 확산되는 특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갖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사회복지학계는 매우 자성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복지학의 정규 교과과정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복지현장의 고민들을 연구로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타학문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질적 연구에 주목하게 되고, 이를 스스로 학습하면서 토착화된 지식생성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닌지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학은 응용학문이자 실용학문으로 많은 학자들이 현장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이 연구가 다시 현장으로 환원해 현장의 지식 및 기술 발달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계와 현장이 각각의 방법대로 각자의 세계 안에 움츠려 지식 및 기술이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

경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임상 혹은 현장 경험이 있는 학문후속세대들이 현장과 연구를 접목하려는 고민과 시도 안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워낙 현장에서 만나고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국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에 맞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니까 그것을 질적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개1)

사실 내가 보기에 질적 연구 붐이 학자들 사이의 붐이 아니에요. 학생들 사이의 붐이고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은 이제 괴로우니까 공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중략) 이거 시작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점점 와 정말 너무 멋있는 연구다 하고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배운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해, 죽을 맛이지. 그러면서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요(개4)

질적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엄격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것은 교육이었다. 여기에는 연구자의 양심 혹은 윤리에 대한 교육, 질적 연구 자체에 대한 교육 등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적 연구 전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학문공동체의 질적 연구에 대한 기초선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제 지식의 수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다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 같아요(포3)

물론 개개인의 역량이 쌓여가지고 출중해 지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기초선 자체를 높여놓으면 학생들도 거기까지는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것 인줄 알고 그 다음을 고민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기초선이 너무 낮으면 거기서 부족한 것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에서 잘한 것으로 종료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개2)

질적 연구자들은 진정한 질적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학문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자들, 다학문 전공자, 양적연구자 모두와 활발한 상호교류가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 사회복지학에의 질적 연구방법 확산에 매우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사회복지학과 질적 연구의 적합성으로 인하여 질적 연구가 사회복지의 현장을 담아내기 위해, 그리고 한국적 이론의 토착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임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많이 배워가면 좋겠고(포3)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안에서 좀 모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간호학이나 다른 교육학 심리학이 아닌 사회복지 안에서 정말 참다운 질적 연구방법이 정착이 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개3)

5. 논의 및 제언

한국 사회복지학에 질적 연구가 소개되고, 중요한 연구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로 매우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연구방법은 사회복지학계에서 빠르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들이 과연 충분히 '질(quality)'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질적 연구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자 넓게는 한국 사회복지학 내에서 질 확보와 관련된 충분한 담론이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를 출발하였으나, 그 과정은 솔직히 매우 어려웠다. 우선 무엇으로 이러한 '질'을 명명해야 할 것인가? 엄격성 혹은 엄밀성, 타당도, 아니면 기타 다른 무엇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혼돈스러웠다. 국외 선행연구들에서는 진실성과 타당도라는 용어들이 좀더 강세를 띠었지만, 그러한 용어는 질적 연구 논문의 질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진실성 등의 용어에는 공감하는 바 크나, 진실성이 연구참여자 및 결과보고에서의 태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엄격성은 연구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연구자로서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엄격성이라는 용어를 논문의 전반에 사용하였으나, 이 역시 이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엄격성이라는 주제가 국내·외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는 주제인지라, 어디로부터 연구를 출발할 것인지도 무척 어려웠다.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식론적 정향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들 혹은 당위론적 필요성과 평가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초기 본 연구자도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연구평가의 기준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구성하였으나, 질적 연구자를 인터뷰하면서 연구평가의 기준 뿐 아니라 질적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엄격성과 관련된 경험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의 사회복지학문공동체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엄격성과 관련하여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한 발전적 지향점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연구내용을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가 문헌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방식을 채택한 것은 질적 연구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다수가 지지보다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적박했던 시기에 마치 개척자처럼 박사학위논문을 혹은 학술지에 과감하게 질적 연구논문을 발표했던 질적 연구자들의 연구과정에서의 엄격성과 관련된 고민들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이러한 방법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는 한국 사회복지학 전공 질적 연구자들의 고민을 무엇보다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정확한 본질이해의 두려움'을 제시하듯, 본 연구자 역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그리고 적절히 분석한 것인지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

연구 분석결과, 한국 사회복지학의 질적 연구는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학문 후속세대에 의해 필요에 의해 확산되는 독특한 형태로 아래로부터 위로 나아가는 정향을 보여주었다. 국내 8종의 학술지

논문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인식론적 입장으로는 후기실증주의적 관점과 약한 구성주의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연구결과의 평가가 아닌 연구시작부터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진실하고 기본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엄격성으로 보고 있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질, 좋은 질적 연구라는 것은 무엇일까? 연구자로서의 책임성은? 이러한 수많은 질문을 통해 연구자 스스로 생각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 질적 연구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연구자가 생각하게 된 몇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엄격한 연구절차에 대한 연구자 스스로의 자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은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 엄격성을 가지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 스스로 모든 연구절차에 대한 엄격함을 스스로 성찰하며, 준수하는 지속적인 책임감, 윤리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론을 가르치는 과목에서 연구윤리, 철학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학계 내에 질적 연구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자들의 경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질적 연구에 대한 '정확한 앎'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석·박사 과정에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한 워크숍 등이 활성화되어 질적 연구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이 개설되어 있으나, 그 과목에 대한 기본 지침조차 공유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교과과정(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바이다.

셋째, 사회복지 질적 연구에 대한 엄격성 확보와 관련된 기준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 질적 연구의 평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평가기준들이 복합되고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분석결과 약 30.4%의 연구자들은 신뢰도, 타당도라는 용어를 연구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들 용어와 함께 질적 연구 고유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23.9%에 달하는 반면, 질적 연구자들을 인터뷰한 경험 분석에는 모든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 고유의 평가 용어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엄격성이든 진실성이든 엄밀성이든 질적 연구 고유의 용어를 사용하여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평가해낼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하나의 틀에 너무 얽매는 것은 오히려 질적 연구를 저해하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질적 연구자는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실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엄격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기준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Meyer(1990)는 연구의 관련성(relevance)이 방법론적 엄격성에 의해 희생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연구의 엄격성은 모든 실증적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다. 방법론적 엄격성을 결여한 연구가 관련성을 갖기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인식론적 논쟁의 다양성이 있지만,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라 할지라도 과정과 결과에서의 엄격성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

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질적 연구방법도 실증적 연구이고,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성이 과연 질적 연구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에서부터, 연구전통(현상학, 근거이론 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되 각각에 대한 평가기준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한국 사회복지학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예컨대, 한국 사회복지학의 경우 실용학문이므로, 연구주제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타 학문과 달리 현상 이해 뿐 아니라 이 연구결과를 통한 함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하나의 평가기준으로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질적 연구 논문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특히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 양적연구와 다른 글쓰기를 허용하고, 별도의 보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다수의 학술지들이 27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 분량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인용구 등의 제시방법 등 세부 지침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엄격성은 일부 질적 연구 논문에서 ‘연구결과의 평가’라는 용어로 연구방법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연구의 엄격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고 진실하게 수행했는지, 결과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자의 사고 변화 및 검증 과정을 논문 안에 기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섯째, 학회지 심사와 관련된 과제로서 질적 연구자의 인력 풀 조성이 요청된다. 한국 사회복지학계는 학자에 의해 소개되기 보다는 현장과 학문후속세대의 필요에 의해 연구방법론이 확산되는 특이한 형태를 통해 질적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질적 연구가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하나의 연구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학계의 다양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 중 하나가 학회지에 논문이 실리는 과정에서의 합리성, 체계성이다. 질적 경험분석을 살펴보면, 모든 질적 연구자들이 학회지 심사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적절한 심시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질적 연구를 심사함으로써 겪는 질적 연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의 인력풀을 조성함으로써 정확한 심사 및 질적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발전 등이 요청된다.

여섯째, 연구자와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상호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질적 연구는 사회복지적합성이 매우 높은 연구방법론이다. 따라서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교육함으로써 이들로부터 비롯되는 한국적인 지식 생성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복지의 책상에 앉아서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독특한 학문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현장 모두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에서 도입된 이론만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토착화된 지식생성을 꿈꾸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다학문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사회복지학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방법은 하나의 사회과학연구방법론으로서 모든 학문에 공통적인 하나의 연구도구이자 틀이다. 그러나 이 방법론을 사회복지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학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때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 혹은 방법론 등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만의 폐쇄공동체가 아니라 질적 연구방법을 먼저 학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온 인류학, 교육학, 간호학 등의 질적 연구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에 가장 적합한 혹은 유용한 질적 연구방법들이 발전되고 개

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자들이 상호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활발한 공동 연구 작업을 통해 토착화된 지식의 생성과 이론구축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질적 연구자를 인터뷰하여 질적 연구과정에서 엄격성 관련 경험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엄격성에 대한 연구공동체의 담론 형성을 촉발하고, 질적 연구자 스스로 엄격성에 대한 자성적 고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엄격성과 관련된 철학적, 인식론적 정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충분히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엄격성에 관한 철학적 고찰의 연구를 기대하며, 이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학에서 엄격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 연구 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 55-82.
- 김연옥. 1990.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5: 151-177.
- 오정수. 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신옥순. 2004.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의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3집. 23: 287-301.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나남.
-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 연구』, 7(1): 175-210.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학지사.
- 홍경준. 1998.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홍경준. 2002. “한국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의 동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Altheide, D. L and Johnson, J. M. 1994. Criteria for assessing interpretive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K. Denzin &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485-49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1994. The art and politics of interpretation. In N. K. Denzin Y. S.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500-51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Eisenhart, M. A and Howe, K. R. 1992. Validity in educational research. In M.D. LeCompte, W.L. Millroy, and J. Preissle (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pp 643-690), San Diego, CA: Academic Press Inc.
- Eisner, E. W. 1991.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Gerard A. T and Cecily M. B. 2004. Methodological rigour within a qualitative frame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8(4): 388-396.

- Goetz J. P and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Guba, E. G and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ammersley, M. 1992. *What's wrong with ethnography? Methodological explorations*. London: Routledge.
-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incoln, Y. S. 1995. Emerging criteria for quality in qualitative and interpre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3): 275-289.
- Mathison, S. 1989.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2): 13-17.
- McCracken, G. 1988. *The long interview*.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eyer. C. H. 1990. Commentary: the forest or the trees? In L. Videka-Sherman and W. J. Reid(Eds),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pp 395-399). Washington, DC: NASW Press.
- Myers, L. L and Thyer, B. A. 1997. Should social work clients have the right to effective treatment? *Social Work*, 42: 288-298.
- Smith. J. 1984. The problem of criteria for judging interpretive inquiry.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6(4): 379-391
- Steinmetz, A. M. 1991. Doing. in M Ely(with M Anzul, T. Friedman, D. Garner & A. M Steinmetz), *Doing qualitative research: Circle within circles*(pp 41-68), London: Falmer.
- Taylor, S. J and Bogdan, R. 1984.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The search for meanings*(2nd ed), New York: John Wiley.

A Study on Experience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ers in Korea : Focus on the Rigor

Kim, Mi-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actual conditions and experiences on the rigor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ers in Korea by using a qualitative inquiry.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on the rigor, this study analyzes 2,112 articles published in 8 Korean social work journals from 1979 to 2006. An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er on the rigor, this study analyzes the experiences of qualitative research by using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tend to enlarge according to the needs by doctoral candidates, coexist with post-positivism and constructivism. The analysi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show that the rigor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validity and control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ntroduced concrete tasks related to secure the rigor of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in Korea.

key words: social welfare, qualitative research, rigor, validity

[논문 접수일 : 07. 06. 15 게재확정일 : 07. 08. 13]